리슈만편모충은 어떻게 '하나의 유럽'에 균열을 가했는가?: '인간 너머의 위험경관'의 시각에서 바라본 코스모폴리타니즘의 한계

황진태* · 김민영** · 배예진*** · 윤찬희**** · 장아련******

How did Leishmania Parasites make Crack in One Europe?: the Limits to Cosmopolitanism from the Perspective of More-than-human Riskscapes

Jin-Tae Hwang* · Minyoung Kim** · Yejin Bae*** · Chanhee Yoon**** · Aryun Chang*****

요약 : 본 연구는 '인간 너머의 위험경관'의 시각에 기반하여 인간과 비인간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에 의하여 오늘날 유럽사회가 '하나의 유럽'을 구축하기 어렵게 만드는 균열과 긴장을 밝히고자 리슈만편모충증 논란을 탐색한다. 구체적인 연구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과 비인간(nonhuman)의 상호작용에 주목하는 인간 너머의 지리학의 시각에서 리슈만편모충증을 발병하게 한 다중적 원인과 발생경로를 파악한다. 둘째, 유럽사회에서 발생한 관련 전염병의 원인을 난민으로만 귀속하려는 특정한 위험경관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구성되었음을 밝힌다. 결론적으로 유럽사회가 지향해왔던 코스모폴리타니즘의 실현을 위해서 인간은 인간중심주의로부터 벗어나 인간과 비인간 사이에 벌어져 있는 인식론, 존재론적 틈을 줄여나가려는 긴 여정을 밟아야 하며, 그 여정에서는 비인간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집단을 타자화하려는 인간 내부의 비인간성에 대한 성찰이 요구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주요어 : 인간 너머의 위험경관, 코스모폴리타니즘, 코스모폴리틱스, 리슈만편모충증, 유럽

Abstract : Through the lens of more-than-human riskscapes, this paper aims to reveal that European society has a difficult time constructing 'One Europe' due to unexpected human-nonhuman interactions beyond anthropocentrism such as a controversy surrounding leishmaniasis disease in Europe after Syrian refugees. Detailed research focuses are as follows. First, through the more-than-human perspective that recognizes the world that is incessantly composed by dialectic interactions between human and nonhuman actors at multiple scales, we track the causes and spread of the disease. Second, we ascertain that a dominant riskscape that attributes the cause of the disease to Syrian refugees alone is politically and socially constructed by particular

이 논문은 2017년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 한국사회과학연구사업(SSK)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7S1A3A2066514).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Research Fellow, Seoul National University Asia Center), dchjt@naver.com, 교신저자

**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학사과정(Under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yijk261@snu.ac.kr

***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학사과정(Under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qodpwls05@naver.com

****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학사과정(Under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jenny7230@snu.ac.kr

*****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학사과정(Under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janga9716@gmail.com

social forces. Consequently, we argue that the concept of more-than-human riskscapes must be considered carefully for realizing cosmopolitanism while recognizing not only nonhuman actors but also the aspect of less-than-human geographies within us.

Key Words : more-than-human riskscapes, cosmopolitanism, cosmopolitics, leishmaniasis, Europe

1. 들어가며

임마뉴엘 칸트(Immanuel Kant)로부터 울리히 벡(Ulrich Beck)까지 유럽의 사상가들은 개별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민족적, 인종적, 경제적, 정치적 차별이 없는 동등한 시민들이 존재할 수 있는 코스모폴리타니즘(cosmopolitanism)이 실현될 공간기획으로서 '하나의 유럽'을 상상해왔었다. 양차대전의 참화를 겪고 만들어진 유럽연합은 하나의 유럽을 실현할 수 있다는 괄목할 진전이었다. 하지만 최근 난민들의 유럽으로의 대규모 유입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논란은 하나의 유럽이라는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여전히 녹록치 않으며 분열적인 유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벡(Beck, 2007a)이 말하듯, 지구적 위험과 위협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코스모폴리타니즘은 국가의 경계 안에서 개별 민족, 국가 단위의 실천보다는 초국가적인 협력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기존 사회과학에 팽배한 방법론적 민족주의/국가주의를 벗어나려는 문제의식을 환기시킨 의의가 있다. 하지만 코스모폴리타니즘은 인간과 사회의 의도와 실천에 주목하면서 글로벌 위험이 도시, 지역, 국가, 대륙을 가로지르는 다층적 스케일 상에서 인간뿐만 아니라 비인간(non-human)의 행위자성(agency) 그리고 인간과 비인간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구성되는 '인간 너머의 지리학(more-than-human geographies)'의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Choi, 2016; 황진태, 2018a).

본 연구에서 필자들은 인간 너머의 지리학의 시선을 '위험경관(riskscape)'(Müller-Mahn, 2012) 개념에 투영한 '인간 너머의 위험경관' 개념을 통하여 오늘날 유럽사회가 하나의 유럽을 실현하기 어렵게 만드는 균열과 긴장을 드러내는 일례로서 리슈만편모충증 논란을 탐색한다. 리슈만편모충증은 시리아 도시 이름을 따서 '알레포의 악마(Aleppo Evil)'로도 불린다. 그 이유는 18세기에 이곳에서 이 병이 처음 보고된 이후부터 풍토병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Ashford *et al*. 1993). 국내 언론에서도 "IS(이슬람국가: 인용자주)가 거리에 던져버린 시체들 때문에 '신선한 살' 파먹는 벌레 확산 중"(아시아투데이, 2015.12.04.), "살 파먹는 시리아 전염병 '알레포의 악마' … 난민 타고 유럽 번지나"(헤럴드경제, 2016.05.31.)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이국의 낯선 전염병을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언론보도로 인해 독자들은 시리아 난민들을 치명적인 전염병을 보균한 위협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과학적 역학조사와 상관없이 생성된 편파적인 인식은 유럽사회에서 특정 사회세력에 의하여 난민의 유입을 막는 논리로 동원되면서 코스모폴리타니즘의 실현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본 논문은 첫째, 인간과 비인간의 상호작용에 주목하는 인간 너머의 지리학의 시각에서 리슈만편모충증을 발병하게 한 다중적 원인들과 발생경로들을 파악한다. 둘째, 유럽사회에서 발생한 관련 전염병의 원인을 난민으로만 귀속하려는 특정 위험경관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구성되었음을 밝힌다. 결론적으로 유럽사회가 지향해왔던 코스모폴리타니즘의 실현을 위해서 인간은 인간중심주의로부터 벗어나 인간과 비인간 사이에 벌어져 있는 인식론, 존재론적 틈을 줄여나가려는 긴 여정을 밟아야 하며, 그 여정에서는 비인간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특징 사회집단을 타자화하려는 인간 내부의 비인간성(inhumanity)에 대한 성찰이 요구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상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첫째, 기존에 하나의 유럽이란 공간기획을 뒷받침한 사조인 코스모폴리타니즘에 내재된 인간중심주의의 한계를 밝히면서 대안적으로

세계의 형성과정에서 인간과 더불어 비인간에 주목하는 코스모폴리틱스 개념을 살펴본다. 둘째, 코스모폴리타니즘 논의는 분석의 스케일이 글로벌 스케일에 치중하면서 결과적으로 다른 스케일들 간의 관계를 간과하였고, 이는 마치 글로벌한 힘을 사회현상의 전개에 있어서 결정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글로벌-로컬의 이분법'(Sayer, 1991)에 갇혀있음을 지적한다. 3장에서는 사례분석을 위한 틀로서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하며 인간과 비인간 간의 관계론적 역동성에 주목하는 인간 너머의 지리학과 단일한 위험을 둘러싸고 다층적 스케일 상에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위험경관 개념을 접목한 '인간 너머의 위험경관' 개념을 새롭게 제시한다. 4장에서는 리슈만편모충증을 발병하게 하는 리슈만편모충의 특성 및 질병 증세를 살펴본다. 5장과 6장에서는 각각 시리아 난민 유입 이전과 이후로 시기를 나누어 유럽에서 리슈만편모충증 확산을 둘러싼 위험경관이 구성되는 요인과 경로를 탐색한다. 7장 결론에서는 본 연구의 의의와 전망을 간략히 정리한다.

2. 인간중심주의, 글로벌 스케일 지향에 기반한 코스모폴리타니즘의 한계

유럽사회에서 코스모폴리타니즘 개념은 철학자 임마뉴엘 칸트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주목받았다. 그는 독일에서 신교와 구교 간에 벌어진 30년 전쟁(1618~1648) 당시 유럽의 정치적 불안정을 안정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가로부터 종교를 분리하여 비종교국가로 만들고, 나아가 개별 민족과 국가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공동의 인류로서 접근하는 코스모폴리타니즘을 제안하였다(박환덕·박열 옮김, 2012).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은 칸트의 코스모폴리타니즘 개념을 근대화와 세계화로 인하여 증대된 지구적 위험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했다(Beck, 2006). 코스모폴리타니즘의 실현을 위해서 칸트가 국가로부터 종교를 분리하고자 했다면, 벡은 국가로부터 민족을 분리하는 것을 관건으로 보았다. 벡에 따르면, 그간 근대화와 세계화 과정에서 '사회'는 '민족국가사회'로 동일시되었고, 민족국가의 외피로 덮인 사회, 정치, 법, 정의, 역사는 사회학적 상상력을 국가 내부로 국한시켰다(Beck, 2007a).

그는 국내적인 것과 국제적인 것을 더 이상 분리시키기 어려우며, 단일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전개되는 테러리즘, 금융위기, 기후변화와 같은 새로운 지구적 위험들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는 '코스모폴리탄 국가(cosmopolitan state)'(Beck, 2001)로 전환할 것을 제언한다. 그동안 국민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개인들은 국경이 흐려지는 상황을 자신들의 위협으로 인식했던 것과 달리, 코스모폴리탄 국가에서 개인들은 국경의 안과 밖에 존재하는 타자들의 타자성(otherness)을 인지하고, 그들과의 연대를 주문한다. 또한 코스모폴리탄 국가는 국가들 간 연대를 바탕으로 한 초국가적 기구와 조절(regulation)의 역할을 강조한다. 유럽에서 코스모폴리타니즘이 실현된 대표적 사례로서 1993년 창립된 유럽연합과 최근 시리아를 비롯한 난민에 대한 유럽사회가 보인 환대의 정치가 언급된다(Spiegel, 2015.09.21.).

여기서 필자들은 코스모폴리타니즘 개념이 갖고 있는 규범적, 윤리적, 실천적 탁월함을 받아들이면서도 코스모폴리타니즘이 보다 충실히 현실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개념에 내재된 두 가지 맹점인 인간중심주의와 글로벌 스케일 지향이 지양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째, 인간중심주의의 맹점에 대한 부분이다. 프랑스의 과학기술사회학자 브뤼노 라투르(Bruno Latour)는 벡의 코스모폴리타니즘에 내재한 인간중심주의가 전쟁을 비롯한 다양한 위험들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면서, 인간뿐만 아니라 비인간의 존재와 영향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코스모폴리틱스를 대안적 개념으로 제시한다.[1] 벡은 인간은 동일한 심리작용을 하는 존재이며, 다른 언어를 갖고 있지만 상대방의 언어를 번역할 수 있는 언어체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세계(the same world)'를 바라보는 인간들 간의 상이한 시각들이 화해된다면 평화가 도래할 것이라 주장한다. 하지만 라투르는 이것이 낙관적 인식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Latour, 2004). 라

투르에 따르면 세계를 동일한 공간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맹점은 세계를 인간이 활동하는 배경막으로 간주하고, 세계 내 비인간의 존재와 비인간이 인간의 의사결정과 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여 '동일한 세계'가 실은 동일한 세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라투르가 사용한 코스모폴리틱스 개념은 본래 벨기에 출신의 과학철학자 이사벨 스텐저스(Isabelle Stengers)가 고안하였다(Stengers, 1996, 2005). 여기서 코스모스는 "실재(reality)를 함께 구성하고 집합적 사회(인간들만이 아니라 비인간들을 항상 포함하는)를 형성하는 수많은 존재들(인간과 비인간, 생물과 무생물)"(김환석, 2017: 4-5)을 가리킨다. 그녀가 코스모스에 정치(politics)를 접목한 이유는 인식론적,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다중적이고, 비환원적인 세계들에 참여하고 있음을 강조"(김환석, 2017: 5)하기 위해서다. 즉, 근대철학과 근대과학에 의하여 분기(分岐)된 사실과 가치, 주체와 객체, 자연과 사회, 시간과 역사는 "영원히 화해 불가능한 것"(김환석, 2017: 5)이 아니라 이러한 분기는 정치를 통하여 상호 연결된다는 것이다. 스텐저스의 문제의식은 최근 인간 너머의 사회과학 연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황진태, 2018a).

비인간인 바이러스의 지구적 차원의 확산 과정은 코스모폴리틱스의 측면에서 설명하기 적절한 사례로 소개된다. 예컨대, Schillmeier(2008)는 캐나다에서 전개된 중증급성호흡증후군(SARS: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의 확산과정을 사례로 동물에서 기인한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 인간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되면서 바이러스를 매개로 동물과 인간 간의 경계가 교란되고, 나아가 기존의 정치, 사회, 의료, 사법, 경제 체계의 변화를 야기했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것(the social)은 결코 순수하게 사회적이지 않으며 '사회 너머(more than social)'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밝혔다.

여기서 주의할 지점은 코스모폴리틱스 개념은 인간 너머의 관계의 복잡성을 인지하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라, 다종(multi-species)적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예측하기 힘든 세계에 인간이 끌려 들어가 있음을 인식하는데 있다(McKiernan and Instone, 2016; Kirksey and Helmreich, 2010). 이러한 다종적 상호작용에 근거한 코스모폴리틱스의 미래는 곧 조화로운 미래를 상정하지 않는다. 코스모폴리틱스 연구자들은 인간들이 코스모폴리타니즘 형태의 '최종적인 평화(final peace)'를 서둘러 선언하기보다는 다종적 상호작용 속에서 인내심을 갖고서 비인간들을 인식하고, 여러 발현되는 관계(조화, 협력, 갈등 등)들을 이해하는 과정에 주목할 것을 주문한다(Haraway, 2013; Candea, 2010; Johnson, 2015). 즉, 인간과 비인간의 실천에 따라서 미래가 구성된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최종적인 평화는 아니더라도 잠정적인 평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2)]

둘째, 글로벌 스케일 지향의 맹점에 대한 부분이다. 벡이 코스모폴리타니즘을 제시한 배경은 현대사회가 통제할 수 없는 지구적 규모의 위험들(글로벌 금융위기, 기후변화, 테러리즘)이 급증하는 세계위험사회(world risk society)로 돌입했다고 보는데 있다(Beck, 2007b). 그는 세계위험사회를 야기한 위험들은 지구적 규모에서 전개된다는 점에서 초국가적 협력, 즉, 국가 스케일과 글로벌 스케일 간의 상호작용(가령, 국제기구의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국가 이하의 다른 스케일(도시, 지역 등)에 비하여 국가 이상의 스케일(국가, 대륙, 글로벌 등)의 역동성에 주목하다보니 글로벌한 힘이 국가 스케일 이하의 로컬에 일방적, 하향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로컬은 위험이 발생하는 배경막 수준으로 인식하는 글로벌-로컬의 이분법이 나타난다는 점이다(황진태, 2016: 286-287; Sayer, 1991).

코스모폴리타니즘 연구와 함께 세계를 의미하는 '코스모(cosmo)'를 접두어로 붙인 코스모폴리틱스의 구체적인 연구들도 전지구적으로 전개되는 스펙터클한 현상들(대표적으로 SARS)을 주목하면서 글로벌-로컬의 이분법이 나타나고 있다(그림 1의 D). 이들 연구가 글로벌-로컬 이분법에 갇혀있다는 필자들의 평가는 라투르로 대표되는 ANT 연구자들에게는 무의미한 지적일 수 있다. 왜냐면 그들의 인식론은 공간의 위계(hierarchy)를 부정하는 위상학(topology)에 근거하면서 스케일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

지만 그들에게는 특정 스케일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것이 의미 없더라도, 스케일 개념을 수용하는 필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연구가 글로벌 스케일 지향적인 연구패턴이 나타난다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본다.

데틀레프 뮐러만(Detlef Müller-Mahn)은 벡의 위험사회론에 내포된 글로벌-로컬의 이분법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글로벌한 힘이 필연적으로 로컬을 규정한다고 보지 않으며, 특정 위험을 해석하는 개인이나 사회집단의 고유한 시각과 그 시각들이 공간적으로 재현되는 측면을 주목하는 위험경관 개념을 제시한다(M ller-Mahn, 2012). 예컨대, 한국의 핵발전소 입지 정책에 위험경관 개념을 적용한 사례연구를 살펴보자. 80년대 후반의 정치적 민주화 이전까지 한국정부는 국가 스케일 상에서 핵발전소를 통하여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이 핵발전소가 입지한 지역이 직면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위험보다 우선하는 시각을 확산시키면서 핵발전 정책을 정당화했었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국가가 생산하고, 확산시킨 특정 위험경관은 견고하지 않았고, 지역주민들과 환경운동단체들은 국가가 만든 위험경관과 대비되는 지역에서의 위험들을 시각화하면서 대립했다. 그리고 이는 결국 국가의 핵발전소 정책을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전사회적인 공론장을 형성하기에 이르렀다(황진태, 2016; Lee *et al*., 2018). 이를 통해서 특정 위험에 대하여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 있음을 드러내는데 위험경관 개념이 유용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위험경관 개념 또한 인간중심주의가 내재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인간중심적 위험경관 개념의 한계는 다음 장에서 상세히 논하고자 한다.

이상 확인한 코스모폴리타니즘에 내재된 두 가지 맹점을 보완하고자 다음 장에서는 대안적 개념으로서 인간 너머의 위험경관의 유용성을 검토한다.

3. 대안적 개념: 인간 너머의 위험경관?

3장에서 필자들은 인간 너머의 지리학 연구에 위험경관 개념을 접목한 '인간 너머의 위험경관'을 제안한다. 인간 너머의 위험경관을 구성하는 두 개념이 각각 기대고 있는 철학들 간의 충돌(구조주의/구성주의(위험경관) vs. 후기구조주의(인간 너머))로 인하여 독자들에게는 '끔찍한 혼종'[3]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인간 너머의 위험경관 개념에 포함된 경관(景觀)의 어원이 지표상의 풍'경(景)'을 인간의 눈으로 '본다(觀)'를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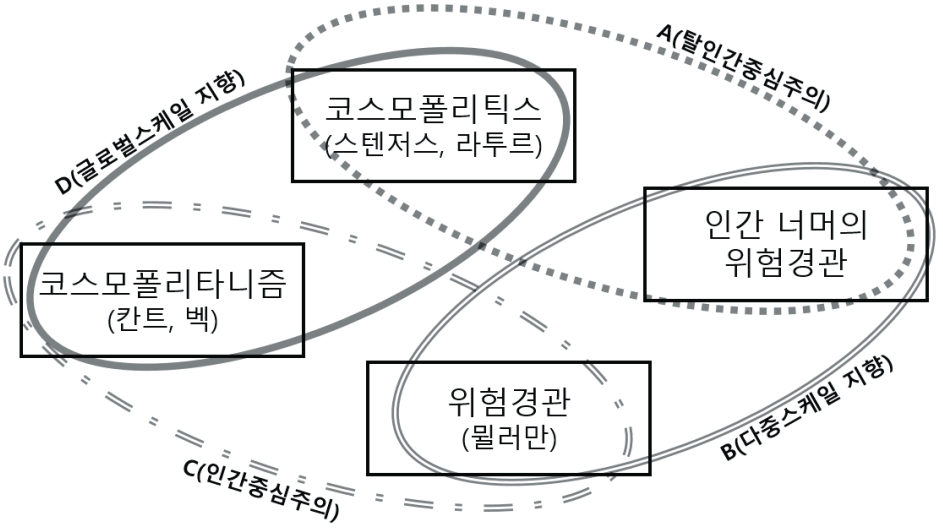

그림 1. 기존 연구에서 인간 너머의 위험경관 개념의 위치성

미한다는 점에서 이 개념은 인간의 시선에 국한되며, 비인간의 시선은 포함되지 않으며, 위험의 범주도 인간에게 인식되는 위험이지, 비인간의 위험은 포함되지 않는다.[4] 즉, 인간 너머의 시선에서 위험경관 개념은 지극히 인간중심적임을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뮐러만이 제안한 위험경관 개념을 검토한 황진태가 지적하듯이, 뮐러만은 물질성과 사회적 실천의 중요성을 인지한다는 점에서 인간 너머의 지리학과 친밀한 이론들(신유물론, 수행성 논의 등)과 중첩되는 지점들이 있으며, 뮐러만이 위험경관 개념을 적용한 에티오피아 가뭄 원인에 대한 사례연구(Müller-Mahn and Everts, 2012)에서는 침입종 프로소피스 줄리플로라(Prosopis juliflora)가 가뭄에 미친 역할을 밝히면서 위험경관과 비인간 간의 관계를 주목하였다는 점에서 위험경관 개념이 인간중심주의로부터 탈출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황진태, 2016: 289).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2018년 뮐러만이 국제학술지 Erdkunde에 위험경관 특집호를 기획하면서 여전히 사회세력 내부의 차이(전문가 집단, 정치인, 지역주민 등)에만 주목하고, 위험(경관)의 형성과정에서 물질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물질이 갖고 있는 행위자성이 인간과 비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며, 위험경관이 생산되는지를 주목하지는 못하고 있다(Müller-Mahn *et al*., 2018: 209-210).

이처럼 개념적, 철학적 분류가 곤란한 혼종임에도 불구하고, 필자들이 그림 1의 A와 B의 교집합처럼 인간 너머의 지리학에 위험경관을 접목하려는 이유는, 이것이 인간 너머의 지리학 논의에서 간과된 '인간 이하(less-than-human)'의 측면을 환기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근에 지리학자 크리스 파일로(Chris Philo)는 학술지 Political Geography에 기고한 짧은 논평에서 인간 너머의 지리학 연구가 인간 연구자들이 비인간들과의 인식론적, 정치적 연대를 통하여 만들어질 새로운 정치, 새로운 윤리에 대한 기대감으로부터 나오는 낙관주의적 경향이 과도함을 지적하는 동시에 이러한 새로운 정치 및 윤리의 도래를 막는 인간 이하의 지리의 측면도 주목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Philo, 2017). 다시 말해, 인간 너머의 지리학 연구에서 '인간 vs. 비인간'을 내세우는 것이 마치 인간은 자신을 비인간에 비하여 도덕적, 윤리적으로 완결된 존재로 전제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5] 파일로가 말한 인간 이하는 인간 너머의 지리학 연구에서 '인간 vs. 비인간' 뿐만 아니라 '인간 vs. 인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을 환기시킨다.

필자들이 인간 너머의 시선을 채택하는 이유는 비인간들의 행위자성을 가시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과 인간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기존에 동일해 보였던 인간들 내부에 존재하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인종적, 젠더적 차이들이 가시화되면서 특정 집단이 타자화, 주변화되는 과정을 포착하기 위해서다(황진태, 2018a: 10). 다시 말해, 인간 너머의 위험경관 개념은 상이한 스케일을 가로지르는 인간과 비인간, 물질과 비물질, 전문가와 일반인, 지식/담론 간의 역동적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는 특정 위험에 관한 여러 해석들과 인식들 중에서 선택된 하나의 위험경관(예컨대, 난민을 전염병 보균자로 보는 인식)이 지배적인 위상을 가지게 되면서 이와는 다른 혹은 대립되는 해석과 인식이 반영된 위험경관들(가령, 난민이 전염병 보균자라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전염병 확산의 원인은 특정 개인, 집단보다는 사회경제적 시스템에서 기인한다고 보는 시각)은 주변화되고, 결과적으로 특정 개인 및 집단이 타자화되는 과정을 주목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다.

Lorimer(2007)는 비인간들 중에서 인간의 정신적, 육체적 반응을 촉발시키는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비인간은 인간과의 관계성에 보다 강렬한 역동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본다. 기존 비인간의 카리스마에 대한 연구가 주목한 카리스마 유형은 세계자연기금의 마스코트인 자이언트 판다가 자신의 귀여움을 내세우면서 자연보호라는 인간의 실천을 이끌었던 것처럼 인간에게 호감을 사고, 친밀감을 주는 '껴안고 싶은 카리스마(cuddly charisma)'를 갖고 있는 비인간들에 초점을 두었다. 하지만 사례연구에서 주목하는 리슈만편모충처럼 인간에게 끔찍함, 두려움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카리스마(feral charisma)'를 갖는 비인간이 위험경관과 인간 이하의 지리의 생산과정에

역동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김지혜, 2018).[6]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사례연구에서는 1) 인간과 비인간, 물질과 비물질 간 상호작용을 통하여 리슈만편모충증의 인간 너머의 지리가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코스모폴리타니즘의 공간프로젝트인 '하나의 유럽'에 균열이 가해지고, 2) 사회세력에 의하여 리슈만편모충증을 둘러싼 여러 위험경관 중에서 특정 위험경관이 선택되고, 지배적인 위상을 갖게 되는 과정을 확인하고자 한다.

4. 리슈만편모충의 특성 및 리슈만편모충증의 전염경로

리슈만편모충증은 2~3㎛ 크기의 충체인 리슈만편모충(그림 2)이 인체 내에 기생하며 발생하는 질병이다. 리슈만편모충증의 주된 전파경로는 '흡혈성 파리'로 불리는 모래파리(sandfly)가 매개체(vector)로서 리슈만편모충을 보유한 보균체(reservoir species)인 개나 고양이 등을 흡혈하면서 충체에 감염된 세포가 모래파리 체내에 증식하고, 그 모래파리가 인간을 흡혈하면서 침과 함께 체내에 주입되어 감염시키는 매개체 전염병(vector-borne disease)이다(Adler and Ber, 1941; 그림 3). 리슈만편모충증은 내장 리슈만편모충증(visceral leishmaniasis: VL), 피부 리슈만편모충증(cutaneous leishmaniasis: CL), 피부·점막 리슈만편모충증(mucocutaneous leishmaniasis: ML), 이상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세 가지 모두 인간들 간에는 전파되지 않지만, 수혈이나 성행위에 의해 감염될 수 있다. CL의 증세는 마치 피부가 썩는 피부병처럼 시작되며 치료 기간은 수주에서부터 1년 이상까지 다양하다(그림 4). VL에 걸리면 발열, 간비종대, 림프절종창, 빈혈, 백혈구 및 혈소판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그림 5). ML은 피부와 점막 사이에 피부병으로 시작되어 결절(結節), 궤양으로 발전한다(그림 6). 재발의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꾸준한 치료를 통해 완치될 수 있기 때문에 불치병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WHO 홈페이지 2018.12.22. 접속; Dujaridin *et al*., 2008; 두산백과 2018.12.12. 접속).

그림 2. 리슈만 편모충(Leishmania donovani)의 현미경 촬영사진
출처: Lofgren(1950: 624)

이처럼 다른 전염병들에 비하여 치사율이 낮고, 불치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뒤에서 확인하듯이 왜 리슈만편모충증은 인간세계에서 강렬한 논쟁의 정치를 유발했을까? 그림 2에서 보듯이 현미경을 통해서야 볼 수 있는 리슈만편모충은 인간들의 정서(즐거움, 두려움 등)에 특별히 영향을 미칠 카리스마는 없어 보인다. 여기서 초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생충이 인체에 침투하면서 그림 3처럼 인간과 비인간 간의 경계는 뚜렷하지 않고, 다공(多孔)적이고, 유연하다는 인간 너머의 지리학의 기본 입장을 재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다.

필자들이 주목한 부분은 리슈만편모충이 인체에 침투하여 야기되는 인간 외형의 변형(피부질환(그림 4), 복부팽만(그림 5), 인후부 붕괴(그림 6)), 다시 말해 전문가들이 리슈만편모충증을 수식하는 표현처럼 인체의 "형태를 망가뜨리는(disfiguring)"(Yanik *et al*., 2004; Alvar *et al*., 2006) 종 간의 '끔찍한 혼종'으로 형성되는 '비인간의 카리스마'(Lorimer, 2007)이다. 이러한 끔찍함, 두려움을 촉발하는 비인간의 카리스마는 인간들 간에 감염이 발생하지 않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사회에서 감염되지 않은 인간들에게 감염된 인간들은 위협으로 간주되고, 이로 인해 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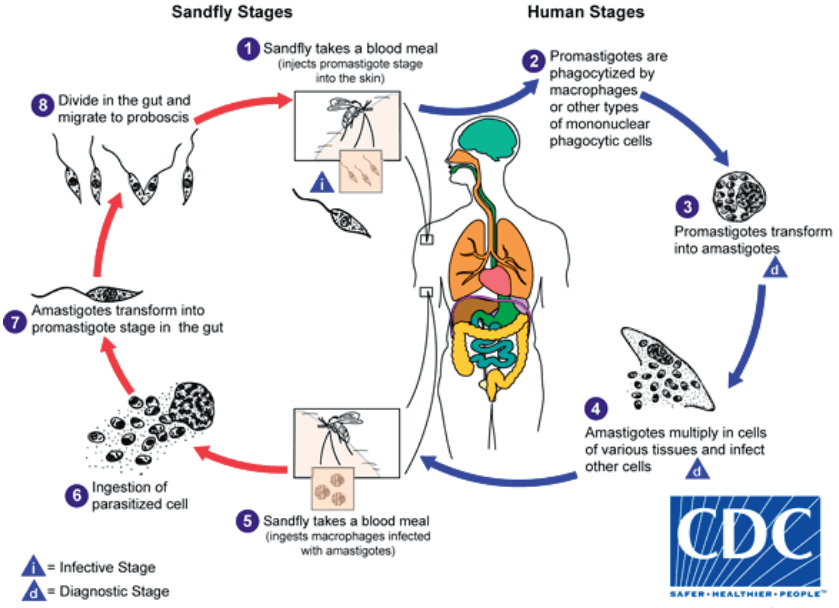

그림 3. 리슈만편모충증의 감염경로

출처: CDC(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 홈페이지 2019.03.01. 접속

그림 4. 피부 리슈만편모충증에 감염된 아이의 얼굴

출처: WHO 홈페이지 2018.12.22. 접속

그림 5. 내장 리슈만편모충증에 감염된 아이의 모습

출처: WHO 홈페이지 2019.06.20. 접속

그림 6. 피부 · 점막 리슈만편모충증에 감염된 성인 남성의 얼굴

출처: Rutledge and Gupta(2002)

자가 되는 인간 이하의 지리가 발생한다. 실제 풍토성 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감염에 의하여 남게 된 상처는 감염자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불안감, 우울증, 삶의 질의 저하를 야기하고, 경제적으로는 고용에 불이익을 받는 사회적 낙인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질병의 완치 이후에도 남은 생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Alvar *et al*., 2006).

이처럼 인간에게 끔찍함, 두려움을 유발하는 비인간의 카리스마로 충만한 리슈만편모충은 그림 3과 같은 단조로운 도식을 넘어서 기후변화, 여행, 경제위기, 내전, 난민 등의 복잡다단한 인간-비인간 연결망과 결합하면서 '하나의 유럽'에 균열을 가하는 다양한 위험경관과 인간 이하의 지리를 생산한다.

5. 시리아 난민 유입 이전 유럽에서 리슈만편모충증 확산을 둘러싼 위험경관의 구성

지난 20년 간 리슈만편모충증이라는 매개체 전염병의 확산은 기후변화에 따른 온난화와 긴밀한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 기온이 높아질수록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모래파리의 발육기간이 단축되고,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이전보다 인간들은 매개체인 곤충들과 빈번하게 접촉하며, 이전보다 따뜻해진 기후로 인해 기존에 알려진 발병지역을 넘어서 새로운 지역으로 질병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5장에서는 시리아 난민 유입 논란 이전에 유럽에서 기후변화 및 사회경제적 요인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리슈만편모충증의 위험경관이 형성,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본다.

1) 기후대에 따른 유럽 내부의 상이한 위험경관의 형성

남부유럽은 여름에는 고온건조하고 겨울은 온난습윤한 지중해성 기후이다. 지중해성 기후의 남부유럽은 리슈만편모충을 인간에게 옮기는 모래파리의 번식에 유리한 풍토이다. 매개체인 흡혈성 모래파리는 영상 28도, 습도 40%에서 알이 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 그로인해 모래파리 성충은 주로 동굴과 같이 어둡고, 서늘하고, 습한 장소나 동물, 인간의 서식지 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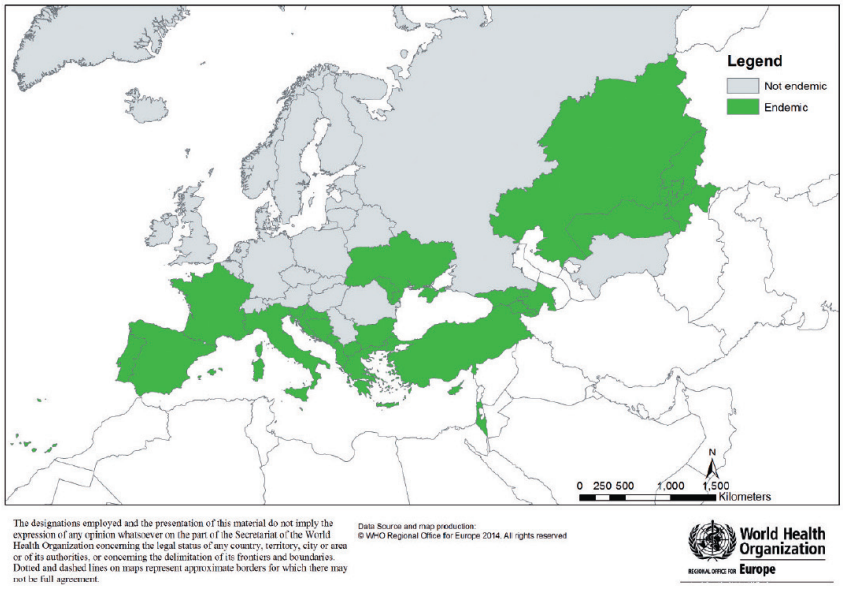

그림 7. 2014년 현재 유럽의 리슈만편모충증의 발생 지역
출처: WHO 유럽지부 홈페이지 2018.12.22. 접속

처에서도 발견된다(Ghazanfar and Malik, 2016).

2014년 기준 WHO 유럽지부에서 발표한 유럽의 리슈만편모충증 발생 지역은 지중해 기후에 해당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의 남부유럽에서 주를 이루고 있다(그림 7). 현재 남부유럽에 위치한 연구기관(대표적으로 Leishmania Identification Reference Centre of Rome과 National Reference Centre for Leishmaniases)과 대학에서 리슈만편모충증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Capelli *et al*., 2004). 일찍이 1930년대에 출간된 Adler and Theodor(1932)의 논문에서 리슈만편모충증의 토착지역 중 하나로 "지중해 지역(Mediterranean foci)"을 손꼽았고, 이탈리아 보건당국에서는 리슈만편모충증 발생에 대한 통계를 1930년대부터 구축해왔다(Pampiglione *et al*., 1974). 즉, 학계에서는 20세기 동안 지중해 지역을 리슈만편모충증의 토착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림 7에서 대비되는 색깔(녹색(풍토성 지역), 회색(비풍토성 지역))처럼 남부유럽과 나머지 유럽 간에는 리슈만편모충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즉, 비풍토성 지역인 비(非)남부유럽의 국가들과 거주민들은 남부유럽과 비교하여 리슈만편모충증을 자신들에게 당면한 위험으로 인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비(非)남부유럽은 비풍토성 지역이라는 이유로 리슈만편모충증을 외래유입 질병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의무적이라기보다는 자발적 차원에서 소수의 연구센터들을 중심으로 정보수집이 이루어지는 미미한 수준의 연구가 진행 중이다. Bart *et al*.(2013)이 지적하듯이 비(非)남부유럽의 의사들은 이 질병에 대한 관심, 진료경험, 치료에 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다수의 케이스들이 인지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기후대를 기준으로 발생하는 인식의 차이를 보여준다. 이처럼 기후에 의한 유럽 내부의 상이한 위험경관의 형성은 뒤에서 살펴볼 시리아 난민 유입 이후에 구성되는 위험경관의 구성과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기후변화에 의한 리슈만편모충증의 북상 가능성

기후변화로 인한 기온과 강우량 패턴의 급격한 변화는 전염병의 발병횟수, 발병범위에 있어서 전지구적인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McMichael *et al*., 2006). 이탈리아 반도의 경우, 197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리슈만편모충증은 시실리를 포함한 이탈리아 남부지역에 국한되어 토착지역으로 규정되었었다(Pampiglione *et al*., 1974). 하지만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탈리아 북부지역에서도 VL을 중심으로 발병하기 시작했고, 1990년대 들어서면서 발병률이 급증하여 오늘날 이탈리아 북부지역에서 리슈만편모충증은 토착화되었다(Maroli *et al*., 2008). Maroli *et al*.(2008)은 이탈리아 북부지역에서 리슈만편모충증이 토착화된 원인으로 기후변화로 인하여 모래파리가 살 수 있는 서식환경이 북부지역에 조성된 것을 손꼽았다.

기후변화의 심화는 리슈만편모충증도 지중해 지역인 남부유럽에만 국한하여 발생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는 상황을 야기했다. 온실가스 배출로 가속화되는 온난화는 기온을 상승시키며, 이로 인해 비(非)남부유럽도 점차 온화해지며, 강수량도 증가하고 있다(Hurrell, 1995). 이러한 기후변화는 매개체인 모래파리가 활동하는 지리적 범위와 리슈만편모충이 서식하는 영역도 변화시키게 되었다. 상승된 기온은 직접적으로 모래파리의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면서 리슈만편모충증을 보다 전염되기 쉬운 형태로 발달시켰고(Hlavacova *et al*., 2013), 간접적으로는 기온상승에 따른 서식환경의 변화로 모래파리의 개체수를 증가시켰다. 예컨대, 프랑스 남부지역에서 모래파리과에 속하는 플레보토무스(Phlebotomus)의 평균 생식소성숙주기는 1을 약간 넘는데, 플레보토무스의 평균 생식소의 성숙주기가 3임을 감안한다면, 주기가 3분의 1로 단축되었다는 점에서 같은 기간에 다른 지역의 모래파리에 비하여 개체수가 급증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Ready, 2008: 401).

즉, 기후변화는 열대성 질병들을 전파하는 매개체 곤충들의 생존을 용이하게 만들었고, 이에 따라 리

슈만편모충증 역시 남부유럽으로부터 북상할 수 있었다(Ready, 2010; Hotez, 2016). 북미 대륙을 사례로 기후변화로 인한 리슈만편모충증의 북상이 캐나다 남부까지 다다를 것으로 예측한 연구(González *et al*., 2010)를 통해서도 비단 유럽뿐만 아니라 전지구적으로 리슈만편모충중의 북상이 우세한 패턴으로 나타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3)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리슈만편모충증의 북상 가능성

앞서 확인한 비(非)남부유럽과 남부유럽 간 기후의 차이와 글로벌 기후변화의 영향과 같은 자연지리적 요인만으로 유럽에서 전염병의 북상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우리는 사회경제적 요인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령, 앞서 소개한 Maroli *et al*.(2008)의 연구는 리슈만편모충증의 북상을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리슈만편모충증의 토착지역인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보균체인 개들이 비(非)남부유럽으로 유입된 것을 손꼽으면서 기후변화만을 전염병 북상의 결정적 요인으로 간주하는 것을 경계한다(Maroli *et al*., 2008: 262).

2010년을 기준으로 지난 20여 년간 비(非)남부유럽의 거주민들은 휴일이 늘어나고, 부유해지면서 지중해 지역에 자신들의 별장을 갖거나 휴가를 보냄에 따라 남부유럽과의 접촉빈도가 증가하였다(Ready, 2010: 8). 접촉빈도가 높아지는 과정에서는 개를 중심으로 보균체들의 이동성도 높아졌다(주로 비(非)남부유럽인들의 남부유럽 개를 구입하여 귀국하는 패턴). 기후변화의 영향을 아직 크게 받지 않은 비(非)남부유럽 지역에서는 매개체인 모래파리가 활동하기 힘든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발병한 경우는 비(非)남부유럽 외부로부터의 보균체 이동에 주목하는 것이 설득력이 높다(Maroli *et al*., 2008).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Trotz-William and Trees(2003)는 리슈만편모충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개의 이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주문하였다.

한편, 남부유럽의 사회경제적 상황의 최근 변화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1945년 이후, 남부유럽은 광범위한 모기 박멸 캠페인과 영양상태 향상으로 인한 면역력강화, 주거환경개선, 매개체가 주로 서식하는 촌락지역의 인구감소 등으로 인하여 소아(小兒)리슈만편모충증이 대폭 감소하였다. 이는 뒤에서 살펴볼 시리아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리슈만편모충증은 안정적인 사회경제적 조건과 보건체계가 뒷받침된다면 생명에 위협적이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Sharara and Kanj, 2014). Hotez (2016)는 2009년부터 시작된 포르투갈, 그리스, 스페인의 경제위기 시기와 세 국가에서 리슈만편모충증을 비롯한 소외열대질환(NTD: neglected tropical disease)이 증가한 시기가 일치한다는 점에서 정확한 상관관계를 밝히지는 못했지만 질병 발발과 발발 국가의 사회경제적 상황 간의 상관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처럼 질병의 토착지역인 남부유럽에서의 열악해진 사회경제적 조건은 그동안 감소되었던 질병들이 다시 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 이는 앞서 살핀 요인들(기후변화, 보균체의 이동성 증가 등)과 맞물려 질병의 북상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7]

6. 시리아 난민 유입 이후 유럽에서 리슈만편모충증 확산을 둘러싼 위험경관의 구성

1) 내전, 난민, 리슈만편모충증 확산 간의 상관관계

2011년 3월 15일 반정부시위인 '존엄의 날' 집회를 시작으로 시리아 내전이 발발하여 현재까지 내전이 진행되고 있다. 시리아에서는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 Islamic State)가 자행한 학살과 고의적 시신방치로 리슈만편모충증에 감염된 환자수가 내전 발발 이전에는 2만 3천명에서 2013년에는 4만 1천명으로 급증하였다. 앞서 설명했듯이 리슈만편모충증은 적절한 치료를 받는다면 완치 가능한 질병이지만, 오랜 내전으로 보건체계가 붕괴되면서

그림 8. 미국 국무부 트위터에 게시된 리슈만편모충증 확산에 기여한 IS를 비난하는 메시지와 감염된 시리아 아이의 사진

해당 지역 내에서는 본 질병의 발병률이 급증하고 있다(Sharara and Kanj, 2014).[8] IS의 시신방치가 리슈만편모충증의 확산에 기여했음을 인지한 미국 국무부에서도 2015년 12월에 IS를 비난하는 메시지와 CL에 감염된 시리아 아이의 사진을 트위터에 게시하였다(그림 8).

시리아에서 발병한 리슈만편모충증은 내전을 피해 모국을 떠나 국경을 넘어온 난민을 통하여 주변국에도 옮겨졌다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Alawieh *et al*., 2014; Saroufim *et al*., 2014; Isenring *et al*., 2018). 레바논 보건부의 발표에 따르면 레바논에서 2000년부터 2012년까지 12년 동안 보고된 리슈만편모충증의 발병사례가 6건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여 2013년 한 해 동안 1033건이 보고되었고, 이 중 96.6%는 시리아 난민으로부터 발생하였으며, 나머지 3.4%는 레바논 사람과 팔레스타인 난민인 것으로 밝혀졌다. Alawieh *et al*.(2014)은 레바논에서 발병률이 높은 지역은 시리아 난민들이 밀집된 지역임을 밝혔고, Saroufim *et al*.(2014)은 2012년 11월 레바논의 시리아 난민 캠프를 방문하여 1275명의 환자들을 조사한 결과, 전체 환자의 67.3%가 알레포로부터 왔음을 확인했다. Koçarslan *et al*.(2013)의 연구에서도 터키의 샨르우르파(Sanliurfa)에서 CL 환자가 급증한 원인으로 시리아 난민들의 유입으로 보고 있다. 이상의 조사결과를 통해서 시리아에서 발발한 내전으로 인하여 리슈만편모충증 발병률이 높아졌고,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인 주변국가들에서는 난민을 통하여 전염병이 확산되었다는 분석은 설득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레바논의 시리아 난민캠프를 조사했던 Saroufim *et al*.(2014)은 리슈만편모충증이 발병한 원인을 시리아 난민 자체만을 주목하기 보다는 난민캠프가 임시가옥으로 건설되고, 열악한 위생상황, 깨끗한 물 부족, 과잉수용으로 인하여 난민들이 질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 환경에도 주목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시리아 난민과 시리아 주변국가에서 발생한 전염병들(리슈만편모충증, 소아마비, 폐결핵, 간염) 간 관계에 대한 2018년 기준 현재까지 출간되었던 연구들을 정리한 Isenring *et al*.(2018)은 시리아 내전이 전염병 발생률을 높인 주요 원인이지만, 주변국가로 이주한 시리아 난민들이 거주할 캠프가 위치한 지역이 모래파리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라는 점 그리고 이러한 환경으로부터 난민들을 제대로 차단하지 못한 열악한 주거조건, 영양실조로 인한 난민들의 전염병에 대한 면역력 저하, 효과적인 백신의 부족, 난민을 수용한 정부에서 모래파리를 포함한 매개체들에 대한 박멸 노력이 부족한 점 등도 발병률을 높인 원인들임을 지적하였다.

시리아 내전 이전에도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전쟁으로 인한 보건체계 붕괴와 사회경제적 상황이 취약해지면서 리슈만편모충증 발병률이 높아졌다는 연구들이 보고되었다는 점에서 시리아에서의 전염병 발병과 확산이 새로운 유형은 아니다(Rowland *et al*., 1999; Seaman *et al*., 1996). 여기서 환기할 지점은 리슈만편모충증의 발병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잠재적 보균자인 난민을 위협으로 규정하고, 국경폐쇄나 격리와 같은 그들의 물리적 이동을 제한시키는 조치가 아니라, 리슈만편모충을 옮기는 매개체와 보균체에 대한 자연지리적 요인들(습도, 기온 등의 서식환경), 인문지리적 요인들(보건체계, 영양실조, 백신개발지원 등)에 대한 복합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황진태, 2018b). 아래에서는 시리아 난민 유입 이후 유럽에서 리슈만편모충증 확산을 둘러싼

위험경관의 구성과정을 통하여 유럽이 지향해온 코스모폴리탄니즘이 어떻게 시리아 난민들을 위협으로 간주하는 배타적 영토주의와 충돌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2) 경합하는 위험경관들: '알레포의 악마'는 유럽에서 유일한 악마인가?

여기서는 대립되는 두 가지 유형의 위험경관을 비교한다. 하나는 시리아 난민들을 '알레포의 악마'를 옮기는 위협으로 보는 시각이며, 또 하나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난민으로만 환원할 수 없는 전염병 발생의 여러 요인들을 강조하는 시각을 비교한다.

2016년 5월 30일자 영국의 유력언론인 인디펜던트(Independent)지는 시리아 난민들의 남부유럽 유입으로 인하여 최근 남부유럽에서 '알레포의 악마'로 알려진 리슈만편모충증의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에 대한 심층기사를 기획하였다(Independent, 2016.05.30.).[9] 기사는 전염병 관련 전문학술지인 PLoS Neglected Tropical Diseases에 실린 연구(Du *et al*., 2016)를 인용하면서 시리아를 비롯한 중동에서 유행하는 이 전염병이 트로이의 목마처럼 유럽으로 이주하는 난민들을 통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하는 여론을 보도하였다. 기사에 수록된 영국 리버풀에 위치한 열대의학스쿨에 소속된 전문가 인터뷰에서 이 전문가는 리슈만편모충증이 시리아에서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국인 이라크, 레바논, 터키 등지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보고되지 않은 감염사례까지 포함한다면 상당한 숫자의 감염자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난민들이 여러 경로를 거쳐 유럽으로 유입하는 만큼 유럽에서도 전염병 확산의 위험이 도사린다는 우려를 표명했다(Independent, 2016.05.30.).

그림 9에서 보듯이 2014년을 기점으로 유럽으로의 난민유입이 급증하기 시작했고 2015년과 2016년에는 매년 1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유입하면서 유럽사회는 전례 없는 난민유입을 체감하고 있다.[10] 이러한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 낯선 이방인들이 전염병을 보균하여 자신들을 위협할 것이라는 시각이 정치인과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확산되었다. 인디펜던트지에서 전염병에 대한 심층보도를 한 것은 유럽사회에서 리슈만편모충증에 대한 집단적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특히, 그림 6과 같이 감염된 환자의 '형태가 망가진(disfigured)' 얼굴들이 미디어를 통하여 확산되면서 다른 전염병들에 비하여 리슈만편모충증에 대한 두려움이 보다 증폭되었다.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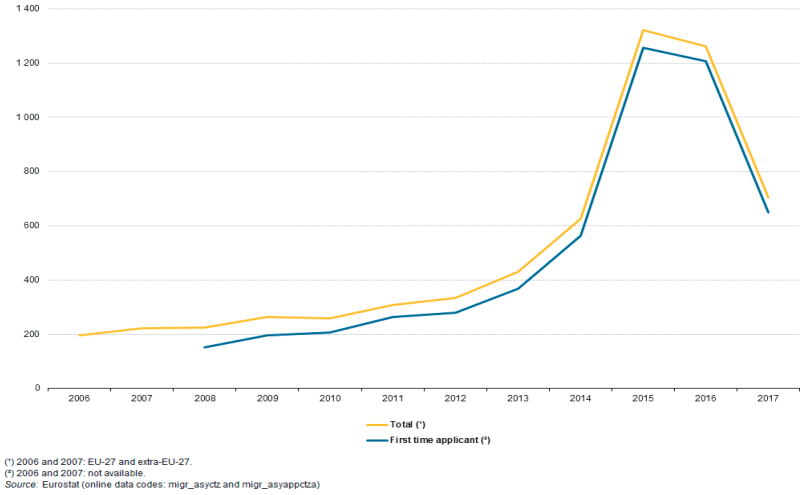

그림 9. 2006–2017년 비EU국가에서 EU국가 난민신청자수(단위: 천 명)

출처: Eurostat

국 국무부가 트위터에 문자뿐만 아니라 CL에 감염된 아이의 사진까지 게시한 행위는 IS가 성인이 아닌 아이에게도 잔혹한 행위를 했다는 선전효과와 더불어 이 질병으로 인하여 남게 되는 상처에 대한 두려움을 대중에게 전달하려는 의도가 읽혀진다. 유사하게 WHO의 선전물(그림 4)에서도 안면에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를 갖게 된 아이의 모습을 넣었다는 점에서 치사율을 강조하는 여타 전염병과는 달리, 끔찍함, 두려움을 유발하는 상처의 심각성을 전달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인디펜던트지 기사의 요지는 전염병에 대한 집합적 두려움을 확산시키는데 있지 않다. 기사의 후반부는 리슈만편모충증의 발생에 대하여 난민들을 잠재적 보균자인 위협으로 묘사하기 보다는 난민을 수용한 캠프의 열악한 위생환경과 주거환경, 장거리 이동에 따른 난민의 면역력 약화가 감염률을 높이며, 세계보건기구의 전염병에 대한 모니터링 개선,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한 의료진 훈련, 매개체 박멸을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또한 리슈만편모충증이 '알레포의 악마'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질병의 기원이 시리아라는 사실을 언급했지만 시리아 내전 이전에 이미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남부를 포함한 남서부유럽에서 이 병이 토착화되었다는 사실 또한 언급하면서 알레포에서 온 악마가 유럽에서 유일한 악마가 아님을 강조하였다. 즉, 리슈만편모충증의 지리적 기원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시리아 난민이라는 사실만으로 잠재적 보균자로 사회적 낙인찍기를 하는 것을 경계해야한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그러나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의도와 달리 기사를 읽은 독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였다. 위험경관은 각 개인, 집단이 처해 있는 지리적,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위치성에 따라서 상이하게 해석될 수 있다(황진태, 2016: 287–290). 인디펜던트지 기사에 달린 200여 개의 댓글을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이 댓글의 담론지형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정리된다.

첫째, "극도로 위험한 질병"의 보균자일 수 있는 난민들로부터 "우리 국민", "우리의 국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우리는 이러한 질병, 테러리스트, 가난한 사람들,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 [유럽으로–역자주] 들여올 수 없다는 무수한 이유들이 있다. 우리는 제1세계의 초강대국이다. 우리는 골칫거리들을 들여옴으로써 우리 사회를 희석시킬 필요가 없다. 기초교육을 받았고, 근면히 일하는 이민자들은 그들이 우리에게 짐이 되지 않는 한 괜찮다. 하지만 제4세계, 제5세계 난민들은 우리를 위험에 처하게 할 뿐이다. 나는 그들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곳에 도움을 보내주도록 하자. 우리는 그들을 여기로 들여놓지 않고서 치안과 생계를 위한 기본적인 필요를 제공할 수 있다. 나는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신념을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모두를 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지 말아야 한다"(인용자 번역).

대부분의 댓글이 "국경을 지켜야 한다"는 정도의 한, 두 줄 이내의 문장을 작성하여 국경을 경계로 우리와 난민을 분리해야한다는 주장을 했다면 위의 번역된 댓글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제1세계의 초강대국")와 그들("질병, 테러리스트, 가난한 사람들,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 "골칫거리", "제4세계, 제5세계 난민")이 각각 누구이며, "여기", "우리 사회"에 "그곳에" "그들"이 들어옴으로써 경계가 "희석(dilute)"되는 것에 대한 우려감을 잘 드러내고 있다. 댓글 저변에 깔려 있는 작성자의 인식에는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경제적, 교육적, 문화적 격차를 정당화하는 선진국 국민의 우월의식과 표면적으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신념을' 존중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유럽사회에 섞이는 것을 원치 않는 배타적 인종주의를 내포하며, 이러한 기존의 지배적인 인식이 전염병 담론과 결합되었다.

둘째, 전염병 논란에 반이슬람주의를 연결시켰다. 관련 댓글들은 이슬람교의 유일신인 알라를 언급하면서 알라가 이 전염병을 보냈다(가령, "알라가 보낸 선물", "알라의 의지")는 문장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는 90% 이상이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시리아 국민과 이들이 모국을 떠나게 만든 이슬람국가(IS) 세력을 동일시하면서 앞서 번역한 댓글에서 보듯이 난민을 테

러리스트로 규정한다. 한 댓글은 리슈만편모충증에 이은 "다음 질병(next disease)"은 유럽의 초등학교에 입학할 이슬람 난민의 자식들이라면서 "당신들의 자녀들을 학교에서 빼내라"고 주장한다. 이 댓글은 유럽의 일상공간을 위협할 존재로서 이슬람 난민의 자녀들을 질병과 동일시했다. 이와 같이 기존의 기독교 vs. 이슬람의 대립구도가 전염병 논란에서 재생산되었다.

셋째, 2016년 미국 대선에서의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대선 공약을 둘러싼 민주당과 공화당 간 논쟁구도가 기사 댓글 공론장에서도 확인되었다. 인디펜던트지는 영국언론이지만 가디언과 더불어 영국을 대표하는 일간지이고, 동일한 언어권인 미국인들은 인디펜던트지의 인터넷 기사에 접근하는데 익숙하다. 댓글의 요지는 전임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한 이민정책의 실패로 이민자가 늘어나면서 전염병도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대안으로 트럼프 후보가 제시한 장벽을 건설하여 이민의 유입을 막자는 것이었다. 예컨대, "미국에 들어온 제3세계 출신의 수천 명의 잠입자들은 결핵균과 지카(Zika) 바이러스를 운반했다"면서 이를 오바마 대통령의 "유산"이라고 말하거나 오바마를 "해충 오바마(vermin Obama)"라고 칭하면서 사람과 전염병을 동일시하는 프레임을 사용하였다.[11)]

앞서 언급했듯이 리슈만편모충증에 대한 인디펜던트지의 기사는 비교적 균형 있게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에 대한 댓글에서 독자들은 기존에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제3세계에 대한 경제적, 문화적 우월의식, 배타적 인종주의, 반이슬람주의 등의 입장들을 중심으로 시리아 난민들을 바라봄으로써 그들을 리슈만편모충증의 유력한 보균자로 규정하는 위험경관을 구성하였다. 2016년 10월 20일에 Euronews에서 시행한 난민들이 유럽에서의 질병확산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설문조사에서도 인디펜던트지의 댓글과 유사한 인식을 볼 수 있다. 선택지는 다음과 같다.[12)]

① 그렇다, 그러나 질병확산의 원인은 그들의 열악한 생활기반이나 환경 때문이다.
② 그렇다, 그리고 그들을 기존의 유럽 인구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
③ 그렇지 않다.

이상 총 3개의 선택지에 대하여 각각 36%, 37%, 26%의 응답률을 기록하였다. 여기에서 ①, ② 문항의 종합 응답률이 73%에 육박하는 수치이므로 난민들이 질병확산에 기여한다고 보는 인식이 지배적이며, 특히, ②처럼 격리와 같은 물리적 이동을 제약하는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답한 비율도 상당히 높았다는 점에서 앞선 인디펜던트지의 댓글과 유사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유럽사회에서 추측과 선입견에 근거하여 난민을 위협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정치인, 소셜미디어, 언론을 통하여 조장되는 상황을 우려한 전염병 및 공중보건 분야 전문가들은 리슈만편모충증을 비롯한 전염병들에 대한 구체적인 역학조사를 수행하여 난민을 위협으로 간주하는 위험경관과 대립하는 결과를 제시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Khan *et al*., 2016; Eiset and Wejse, 2017; Beeres *et al*., 2018). 첫째, 난민의 감염은 이주과정에서 직면하는 열악한 환경으로부터 기인한다는 점에서 감염을 야기한 영양상태, 주거, 의료서비스와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들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결과는 시리아 주변국들에서의 리슈만편모충증의 확산에 대한 해결책으로도 이미 언급되었다(Saroufim *et al*., 2014; Isenring *et al*., 2018 참조). 둘째, 난민 간의 전염 확률이 높더라도 난민으로부터 수용국 국민들에게 전염병이 확산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 오히려 결핵의 경우, 난민에게서 수용국 국민보다는 수용국 국민이 난민에게 전염시킬 위험이 더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오기도 하였다(예컨대, 덴마크 사례로 Kamper-Jørgensen *et al*.(2012) 참조). 셋째, 유럽에서 발생한 감염자들은 난민보다는 전염병의 풍토성 지역을 여행하고 온 수용국 출신 여행객이 많았다. 이 결과는 이미 난민 유입이 본격화되기 직전인 2012년 이전의 역학조사에서도 풍토성 지역에서 근무했던 수용국의 군인(대표적으로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된 네덜란드 군인), 여행객 등이 상당히 있다고

밝혔던 바이다(Di Muccio *et al*., 2015; Bart *et al*., 2013).

7. 나오며

생물안보(biosecurity)의 공간은 '순수하지 않고, 질병에 걸린 공간(impure, diseased space)'과 대비되는 '순수한 공간(pure space)'을 가정한다(Hinchliffe *et al*., 2013: 531). 생물안보의 작동양상은 국가가 특정 현상을 위험으로 정의내리고, 비상상태를 선포하고, 국가의 안과 밖 간의 경계를 뚜렷하게 만드는 영역화 전략들(위험한 밖의 존재가 안전한 경계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된다는 내러티브 만들기, 입국심사 강화, 전염병 감시기술 도입 등)이 포함된다. 리슈만편모충증 확산을 막기 위하여 국가의 영역화 전략은 적절한 대응일까?

WHO가 제작한 리슈만편모충증 발생 국가들을 표시한 지도(그림 7)는 국경을 기준으로 비(非)남부유럽 국가들은 비풍토성 지역으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앞서 보았듯이 국경을 중심으로 규정된 비풍토성 지역은 기후변화로 인하여 리슈만편모충과 모래파리가 생존할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하면서 비풍토성 지역 내부에서도 리슈만편모충증이 발생하고, 더불어 개와 인간(군인, 여행객, 난민 등)의 이동성이 높아지면서 기존에 국가와 국가 사이에 경계를 긋는 영역적 사고에 기반한 생물안보만으로는 전염병 대처가 효과적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지 인종주의, 반이슬람주의를 동원하는 인간 이하의 인간들이 비인간의 유입 원인을 특정 인간(난민)에게 귀속시키는 위험경관을 구성하면서 정치적 수혜(극우정당의 지지율 상승 등)를 얻으면서 분열적인 유럽을 강화시킨 것이다.

따라서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집합으로서의 하나의 유럽을 넘어서 리슈만편모충증이 발병한 난민들의 모국을 대상으로 한 유럽 차원의 인도주의적 손길을 뻗는 것이야말로 역설적으로 코스모폴리타니즘을 지향하는 하나의 유럽을 견고히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간계 내부의 노력과 더불어 인간은 비인간과의 새로운 동맹의 구축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리슈만편모충증의 매개체인 모래파리를 역(逆)으로 리슈만편모충증을 치료하는 백신을 전달하는 역할(즉, '날아다니는 백시네이터(flying vaccinator)')을 부여하는 연구(Yamamoto *et al*., 2010)와 같은 다양한 해결책들이 공론화되고, 이 중 선정된 해결책을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마땅할 것이다.

본 연구는 비유럽에서 건너온 압도적인 숫자의 이방인들과 마주친 유럽사회는 인간과 비인간이 만드는 예상치 못한 긴장, 사건과 마주하면서 언제든지 갈라질 수 있는 균열이 내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즉, 오직 인간만이 최종적 평화를 구축할 것이라는 코스모폴리타니즘의 인식론, 존재론, 방법론은 인간과 비인간 간의 복잡하고, 다층화된 상호작용을 통하여 생산되는 위험들을 진단,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코스모폴리타니즘이 지향하는 민족적, 인종적, 경제적, 정치적 차별이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간과 비인간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인간들 내부에 존재하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인종적, 젠더적 차이가 부각되어 특정 집단, 민족이 타자화, 주변화되는 과정도 주목해야 함을 환기시켰다. 앞으로 국내 학계에서 인간 너머의 위험경관에 관한 다채로운 연구가 시도되길 기대한다.

사사

본 연구는 국내 지리학계에 배태된 '인문–자연 지리학의 이분법'을 넘어서려는 문제의식(황진태, 2018b)을 시작으로 인간 너머의 지리학(황진태, 2018a)과 해외지역연구의 확대 필요성 그리고 대학 강의실에서 '교수자–학습자 공동의 지리학적 지식의 생산' 가능성(황진태 외, 2019 출간예정)이라는 복합적 문제의식 속에서 추진되었다. 2017년 1학기 서울대 지리교육과 유럽지역연구 강의에서 교수자인 황진태는 위험경관 개념과 유럽지역 간의 관계를 강의

하고, 학습자인 김민영, 배예진, 윤찬희, 장아련은 교수자의 강의와 토론을 바탕으로 리슈만편모충 논란을 발굴하고, 본 논문의 바탕이 된 기말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황진태는 이론논의와 사례분석의 정교화 및 수정 작업을 주도했고, 이 과정에서 공동저자들과 상호검토를 하였다. 초고는 2017년 한국도시지리학회 동계학술대회, 2017년 한국환경사회학회 추계학술대회, 2017년 11월 서울대 지리교육과 콜로키움, 2019년 비판사회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다. 익명의 심사자들은 국내에서 낯선 이론과 주제를 다루면서 나타나는 분석의 조악함을 보완해주는 날카롭고, 유익한 논평을 주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박사과정 김지혜,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연구조교 김준수는 최종 수정본에 대한 검토를, 서울대 병원의 유기훈 선생은 의학자문을 해주었다. 끝으로 본 연구를 발표한 자리에서 관심과 격려를 주신 울산대 한상진 선생님, 충북대 류연택 선생님, 제주대 권상철 선생님, 서울대 류재명 선생님과 Douglas Gress 선생님 그리고 서울대 지리교육과에서 3년 동안 유럽지역 연구를 강의할 기회를 주신 이상일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주

1) 흥미롭게도 코스모폴리타니즘의 대표 사상가인 칸트는『영구평화론』에서 "이 영구 평화를 보장(보증)해주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위대한 기교가인 자연이다"(박환덕 · 박열 옮김, 2012: 68)고 말하였다. 자연이 어떤 통일된 방향을 갖고 있다(즉, 자연의 합목적성)고 보는 시각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가 세계의 구성에 있어서 자연의 중요성을 인지했다는 점은 인간중심주의적인 코스모폴리타니즘이 인간 너머의 시각과 접목할 단초를 발견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2) 칸트도 영구평화를 이끌어낼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은 타인과의 연대를 하고자 하면서도 이기적으로 상호 갈등하려는 '비사회적 사회성'이 있다면서, 이러한 비사회적 사회성과 적대성이 영구평화에 반하는 '야만적 자유상태'에 처해질 수 있다고 보았다(황태연, 2004: 231). 즉, 영구평화론을 주창한 칸트를 '순진한 이상주의자'로 보는 일각의 시각과 달리, 그는 비사회적 사회성과 적대성을 갖고 있는 인간들과 이들이 만든 국민국가의 영토성에 기반한 갈등과 투쟁에 대한 현실주의적 인식을 갖고 있었다(황태연, 2004: 230).

3) '끔찍한 혼종'이란 용어는 온라인게임 스타크래프트에서 생물학적으로 다른 종족인 저그와 프로토스 간에 만들어진 융합체를 보고 게임 속 인물인 제라툴이 외친 "누가 이런 끔찍한 혼종을 만들어냈단 말인가?"는 대사에서 기인한다. 이 용어는 이후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하여 패러디되면서 확산되었다.

4) 여기서 필자들이 인간의 위험과 비인간의 위험을 구분한 것은 위험경관 개념의 인간중심성을 인식론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것이며, 비인간들로 구성된 생태계가 파괴된다면 인간의 생존도 어렵다는 점에서 비인간의 위험이 인간의 위험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한다.

5) 파일로는 '인간 vs. 비인간' 구도에 내포된 비인간으로부터 절연된 인간의 윤리적 우월성이 인간들 간의 관계를 간과하였음을 지적하지만, 인간 너머의 지리학은 인간과 비인간 간의 관계를 대립적으로 설정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인간과 비인간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지점도 주목한다. 가령, Lorimer(2016)는 인간 신체의 경계를 횡단하는 십이지장충의 이동을 통하여 윤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도 인간은 비인간으로부터 독립된 주체인가에 대하여 의문을 던진다. 이러한 통찰은 사례연구에서 살펴볼 리슈만편모충증에 감염된 환자들의 증상에 대한 서술에서 재론할 것이다.

6) 종교 및 정치지도자를 향한 자발적 복종을 야기하는 인간의 카리스마의 기원은 주로 특정 인물의 내재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본다. 반면, 비인간의 카리스마는 비인간 고유의 특성, 인간과 비인간 간의 관계적 특성, 비인간과 마주치는 인간의 특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비인간의 존재감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Lorimer, 2007: 915). 비인간의 카리스마에 대한 다면적 평가는 김지혜(2018: 109−114)를 참조 바람.

7) 참고로 리슈만편모충증과 에이즈 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리슈만편모충증은 인간 간에는 전염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조사에서는 리슈만편모충증과 에이즈의 동시감염 사례가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과 같은 남서부 유럽에서 보고되고 있다(Alvar *et al*., 2008; Desjeux and Alvar, 2003; Desjeux, 2001). 동시감염은 헤로인과 같은 정맥주사 마약을 투여하면서 주삿바늘을 공유하는 사례에서 압도적으로 확인된다(Desjeux and Alvar, 2003)는 점에서 보건체계 수준이 높은 비(非)남부유럽에서의 유사한 발병 가능성은 높지는 않지만 가능성은 열려 있다.

8) 2014년 기준, 시리아 전체 공공병원의 57%가 파괴되었고, 최소 160명의 의사가 죽임을 당하고, 수백 명의 의사들이 감금되면서, 8만여 명의 의사들이 시리아를 탈출하였다

(Sharara and Kanj, 2014).

9) 리슈만편모충증을 다룬 여러 기사들이 있지만, 인디펜던트지는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영향력 있는 매체로서 다른 매체의 기사에 비하여 댓글이 많이 달렸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분석에서는 인디펜던트지 기사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10) 저자들 중 한명은 2016년 2월부터 3월까지 독일을 방문했는데, 2012년부터 13년까지 체류했던 인구 7만 명이 사는 소도시인 바이로이트(Bayreuth)도 재방문하였다. 그는 와이파이를 무료로 이용하고, 같은 민족 간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목적으로 시리아 난민들이 도심에서 가장 큰 상가에 모여 있는 새로운 풍경을 목격하고, 도심을 벗어나서는 독일인 노부부가 살던 가옥은 난민들을 수용하기 위한 주택으로 바뀐 것을 확인했다. 대도시뿐만 아니라 외국인들과의 접촉빈도가 낮은 소도시에 사는 독일인들에게도 난민들은 그들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가고 노골적으로 표출되지는 않더라도 불안한 시선이 존재하고 있음을 목격하였다.

11) 최근 중앙아메리카 출신의 이민 행렬인 카라반을 보도하는 미국 언론도 과학적인 조사도 없이 이들이 결핵, 나병, 천연두와 같은 전염병을 보균하여 국경을 넘으면서 미국인들을 전염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공공연하게 표출하고 있다(The Verge, 2018.10.30.).

12) 위의 선택지는 구성에서부터 편견이 내포되어 있다. 기존 여론조사방식을 참고하면, 확산에 기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선택지는 '그렇다 또는 그렇지 않다'로 배치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위의 선택지는 '그렇다'를 두 개, '그렇지 않다'를 한 개, 총 세 개로 구성되었다. 또한 부가적으로 선택지 ①과 ②는 각각 질병확산의 원인과 질병확산에 대한 대책을 삽입하여 본래의 질문에 대한 선택지로서 적합하지 않으며, 작성자의 편견(가령, 질병 확산을 막는 여러 대책 중에서 격리를 선택)이 들어가 있다.

참고문헌

김지혜, 2018, "한국의 양식 산업 속 적조와 인간의 관계: 작은 것들의 카리스마, 적조," 공간과 사회, 28(1), 101−149.

김환석, 2017, "코스모폴리틱스와 기술사회의 민주주의," 사회과학연구, 30(1), 1−18.

박환덕 · 박열 옮김, Kant, I., 2012, 영구평화론, 범우사, 파주.

황진태, 2016, "동아시아 맥락에서 바라본 한국에서의 위험경관의 생산," 대한지리학회지, 51(2), 283−303.

황진태, 2018a, "'인간 너머의 지리학'의 탐색과 전망," 공간과 사회, 28(1), 5−15.

황진태, 2018b, "자연−인문지리학의 이분법을 넘어선 융복합 연구를 위한 시론(I)," 대한지리학회지, 53(3), 283−303.

황진태 · 박지연 · 신수현 · 이현주, 2019 출간예정, "개념 중심의 지역지리 강의하기: 위험경관 개념을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 기획, 새로운 지역지리학과 지역지리교육, 푸른길.

황태연, 2004, 계몽의 기획, 동국대학교출판부, 서울.

Adler, S., and Ber, M., 1941, Transmission of Leishmania tropica by the bite of Phlebotomus papatasii, *Nature*, 148(3747), 227.

Adler, S., and Theodor, O., 1932, Investigations on mediterranean Kala Azar, VI.:Canine visceral leishmaniasis, *Proc. R. Soc. Lond. B*, 110(768), 402-412.

Alawieh, A., Musharrafieh, U., Jaber, A., Berry, A., Ghosn, N. and Bizri, A.R., 2014, Revisiting leishmaniasis in the time of war: the Syrian conflict and the Lebanese outbreak, *International Journal of Infectious Diseases*, 29, 115-119.

Alvar, J., Canavate, C., Gutierrez-Solar, B., Jimenez, M., Laguna, F., Lopez-Velez, R., Molina, R. and Moreno, J., 1997, Leishmania and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coinfection: the first 10 years, *Clinical Microbiology Reviews*, 10(2), 298-319.

Alvar, J., Yactayo, S., and Bern, C., 2006, Leishmaniasis and poverty, *Trends in Parasitology*, 22(12), 552-557.

Alvar, J., Aparicio, P., Aseffa, A., Den Boer, M., Canavate, C., Dedet, J. P., Gradoni, L., Horst, R. T., Lovez-Velez, R., and Moreno, J., 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leishmaniasis and AIDS: the second 10 years, *Clinical Microbiology Reviews*, 21(2), 334-359.

Ashford, R.W., Rioux, J.A., Jalouk, L., Khiami, A. and Dye, C., 1993, Evidence for a long-term increase in the incidence of Leishmania tropica in Aleppo, Syria,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of Tropical Medicine and Hygiene*, 87(3), 247-249.

Bart A., Van Thiel P.P., De Vries H.J., Hodiamont C.J., Van Gool T., 2013, Imported leishmaniasis in the Neth-

erlands from 2005 to 2012: epidemiology, diagnostic techniques and sequence-based species typing from 195 patients, *Euro Surveill*, 18(30):pii=20544.

Beck, U., 2001, The cosmopolitan state: towards a realistic utopia, *Eurozine,* https://www.eurozine.com/the-cosmopolitan-state/

Beck, U., 2006, *Cosmopolitan Vision*, Polity, Malden, MA.

Beck, U., 2007a, The cosmopolitan condition: why methodological nationalism fails, *Theory, Culture and Society*, 24(7-8), 286-290.

Beck, U., 2007b, *Weltrisikogesellschaft: Auf der Suche nach der verlorenen Sicherheit*, Suhrkamp Verlag Frankfurt.

Beeres, D.T., Cornish, D., Vonk, M., Ravensbergen, S.J., Maeckelberghe, E.L., Van Hensbroek, P.B. and Stienstra, Y., 2018, Screening for infectious diseases of asylum seekers upon arrival: the necessity of the moral principle of reciprocity. *BMC Medical Ethics*, 19(1) https://doi.org/10.1186/s12910-018-0256-7

Capelli, G., Baldelli, R., Ferroglio, E., Genchi, C., Gradoni, L., Gramiccia, M., Mortarino, M., Pietrobelli, M., Rossi, L. and Ruggiero, M., 2004, Monitoring of canine leishmaniasis in northern Italy: an update from a scientific network, *Parassitologia*, 46(1-2), 193-197.

Candea, M., 2010, "I fell in love with Carlos the meerkat": engagement and detachment in human–animal relations. *American Ethnologist*, 37(2), 241-258.

Choi, M. A., 2016, More-than-human geographies of nature, *Journal of the Korean Geographical Society*, 51(5), 613-632.

Desjeux, P., 2001, The increase in risk factors for leishmaniasis worldwide,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of Tropical Medicine and Hygiene*, 95(3), 239-243.

Desjeux, P. and Alvar, J., 2003, Leishmania/HIV co-infections: epidemiology in Europe, *Annals of Tropical Medicine and Parasitology*, 97(1), 3-15.

Di Muccio, T., Scalone, A., Bruno, A., Marangi, M., Grande, R., Armignacco, O., Gradoni, L. and Gramiccia, M., 2015, Epidemiology of Imported Leishmaniasis in Italy: implications for a European Endemic Country, *PLoS ONE*, 10(6): e0129418. doi:10.1371/journal. pone.0129418.

Du, R., Hotez, P. J., Al-Salem, W. S., and Acosta-Serrano, A., 2016, Old World cutaneous leishmaniasis and refugee crises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LoS Neglected Tropical Diseases*, 10(5), e0004545.

Dujardin, J.C., Campino, L., Cañavate, C., Dedet, J.P., Gradoni, L., Soteriadou, K., Mazeris, A., Ozbel, Y. and Boelaert, M., 2008, Spread of vector-borne diseases and neglect of Leishmaniasis, Europe,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14(7), 1013-1018.

Ghazanfar M., and Malik M.F., 2016, Sandfly and leishmaniasis: a review, *J Ecosys Ecograph*, 6(3). doi:10.4172/2157-7625.1000207

González, C., Wang, O., Strutz, S. E., González-Salazar, C., Sánchez-Cordero, V., and Sarkar, S., 2010, Climate change and risk of leishmaniasis in North America: predictions from ecological niche models of vector and reservoir species, *PLoS Neglected Tropical Diseases*, 4(1), e585.

Haraway, D. J., 2013, *When Species Meet*,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Minneapolis.

Hinchliffe, S., Allen, J., Lavau, S., Bingham, N., and Carter, S., 2013, Biosecurity and the topologies of infected life: from borderlines to borderlands. *Transactions of the Institute of British Geographers*, 38(4), 531-543.

Hlavacova, J., Votypka, J., and Volf, P., 2013, The effect of temperature on Leishmania (Kinetoplastida: Trypanosomatidae) development in sand flies, *Journal of Medical Entomology*, 50(5), 955-958.

Hotez, P. J., 2016, Southern Europe's coming plagues: vector-borne neglected tropical diseases, *PLoS Negl Trop Dis*, 10(6), e0004243.

Hurrell, J. W., 1995, Decadal trends in the North Atlantic Oscillation: regional temperatures and precipitation, *Science*, 269(5224), 676-679.

Isenring, E., Fehr, J., Gültekin, N. and Schlagenhauf, P., 2018, Infectious disease profiles of Syrian and Eritrean migrants presenting in Europe: a systematic review, *Travel Medicine and Infectious Disease*, 25, 65-76.

Johnson, E. R., 2015, Of lobsters, laboratories, and war: animal studies and the temporality of more-than-

human encounters,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33(2), 296-313.

Kamper-Jørgensen, Z., Andersen, A.B., Kok-Jensen, A., Kamper-Jørgensen, M., Bygbjerg, I.C., Andersen, P.H., Thomsen, V.Ø. and Lillebaek, T., 2012, Migrant tuberculosis: the extent of transmission in a low burden country, *BMC Infectious Diseases*, 12(1), p.60.

Khan, M.S., Osei-Kofi, A., Omar, A., Kirkbride, H., Kessel, A., Abbara, A., Heymann, D., Zumla, A., and Dar, O., 2016, Pathogens, prejudice, and politics: the role of the global health community in the European refugee crisis, *The Lancet Infectious Diseases*, 16(8), e173-e177.

Kirksey, S. E., and Helmreich, S., 2010, The emergence of multispecies ethnography, *Cultural Anthropology*, 25(4), 545-576.

Koçarslan, S., Turan, E., Ekinci, T., Yesilova, Y., and Apari, R., 2013, Clinical and histopathological characteristics of cutaneous Leishmaniasis in Sanliurfa City of Turkey including Syrian refugees, *Indian Journal of Pathology and Microbiology*, 56(3), 211-215.

Latour, B., 2004, Whose cosmos, which cosmopolitics? comments on the peace terms of Ulrich Beck, *Common Knowledge*, 10(3), 450-462.

Lee, S. H., Hwang, J. T., and Lee, J. 2018, The production of a national riskscape and its fractures: nuclear power facility location policy in South Korea, *Erdkunde*, 72(3), 185-195.

Lofgren, R., 1950, The structure of Leishmania tropica as revealed by phase and electron microscopy, *Journal of Bacteriology*, 60(5), 617-625.

Lorimer, J., 2007, Nonhuman charisma,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25(5), 911-932.

Lorimer, J., 2016, Gut buddies: multispecies studies and the microbiome, *Environmental Humanities*, 8(1), 57-76.

Maroli, M., Rossi, L., Baldelli, R., Capelli, G., Ferroglio, E., Genchi, C., Gramiccia, M., Mortarino, M., Pietrobelli, M. and Gradoni, L., 2008, The northward spread of leishmaniasis in Italy: evidence from retrospective and ongoing studies on the canine reservoir and phlebotomine vectors, *Tropical Medicine & International Health*, 13(2), 256-264.

McKiernan, S., and Instone, L., 2016, From pest to partner: rethinking the Australian White Ibis in the more-than-human city, *Cultural Geographies*, 23(3), 475-494.

McMichael, A. J., Woodruff, R. E., and Hales, S., 2006, Climate change and human health: present and future risks, *The Lancet*, 367(9513), 859-869.

Müller-Mahn, D. (Ed.)., 2012, *The Spatial Dimension of Risk: How Geography Shapes the Emergence of Riskscapes*, Routledge, London.

Müller-Mahn, D. and Everts, J. 2012, Riskscapes: the spatial dimension of risk, in Müller-Mahn, D. Ed.. *The Spatial Dimension of Risk: How Geography Shapes the Emergence of Riskscapes,*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22-36.

Müller-Mahn, D., Everts, J., and Stephan, C., 2018, Riskscapes revisited: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risk, space and practice, *Erdkunde*, 72(3), 197-213.

Pampiglione, S., La Placa, M., and Schlick, G., 1974, Studies on mediterranean leishmaniasis I. An outbreak of visceral leishmaniasis in Northern Italy,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of Tropical Medicine and Hygiene*, 68(5), 349-359.

Philo, C. 2017. Less-than-human geographies, *Political Geography*, 60, 256-258.

Ready, P. D., 2008, Leishmaniasis emergence and climate change, *Revue scientifique et technique*, 27(2), 399-412.

Ready, P. D., 2010, Leishmaniasis emergence in Europe, *Eurosurveillance*, 15(10).

Rowland, M., Munir, A., Durrani, N., Noyes, H. and Reyburn, H., 1999, An outbreak of cutaneous leishmaniasis in an Afghan refugee settlement in northwest Pakistan,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of Tropical Medicine and Hygiene*, 93(2), 133-136.

Rutledge, L. C. and Gupta, R. K., 2002, Moth flies and sand flies (Psychodidae), in Mullen, G. and Durden, L Eds. *Medical and Veterinary Entomology*, Elsevier Science, 147-161.

Saroufim, M., Charafeddine, K., Issa, G., Khalifeh, H.,

Habib, R.H., Berry, A., Ghosn, N., Rady, A., and Khalifeh, I., 2014, Ongoing epidemic of cutaneous leishmaniasis among Syrian refugees, Lebanon,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20(10), 1712-1715.

Sayer, A., 1991, Behind the locality debate: deconstructing geography's dualisms, *Environment and planning A*, 23(2), 283-308.

Schillmeier, M., 2008, Globalizing risks: the cosmo-politics of SARS and its impact on globalizing sociology, *Mobilities*, 3(2), 179-199.

Seaman, J., Mercer, A.J., Sondorp, H.E., and Herwaldt, B.L., 1996, Epidemic visceral leishmaniasis in southern Sudan: treatment of severely debilitated patients under wartime conditions and with limited resources, *Annals of Internal Medicine*, 124(7), 664-672.

Sharara, S.L., and Kanj, S.S., 2014, War and infectious diseases: challenges of the Syrian civil war, *PLoS Pathogens*, 10(11), e1004438.

Stengers, I., 1996, *Cosmopolitiques 1: La guerre des sciences*, La Découverte, Paris.

Stengers, I., 2005, The cosmopolitical proposal. B, Latour and P, Weibel (eds.). *Making Things Public: Atmospheres of Democracy*, MIT Press, Cambridge, Mass, 994-1003.

Trotz-William, L. A., and Trees, A. J., 2003, Systematic review of the distribution of the major vector-borne parasitic infections in dogs and cats in Europe. *The Veterinary Record*, 152(4), 97-105.

Yamamoto, D. S., Nagumo, H., and Yoshida, S., 2010, Flying vaccinator: a transgenic mosquito delivers a Leishmania vaccine via blood feeding, *Insect Molecular Biology*, 19(3), 391-398.

Yanik, M., Gurel, M.S., Simsek, Z. and Kati, M., 2004, The psychological impact of cutaneous leishmaniasis, *Clinical and Experimental Dermatology: Clinical Dermatology*, 29(5), 464-467.

[언론자료]

헤럴드경제, 2016, "살 파먹는 시리아 전염병 '알레포의 악마'… 난민 타고 유럽 번지나," 5월 31일자.

아시아투데이, 2015, "IS가 거리에 던져버린 시체들 때문에 '신선한 살' 파먹는 벌레 확산 중," 12월 4일자.

Euronews, 2016, 'Are refugees bringing diseases to Europe?', http://www.euronews.com/2016/10/20/are-refugees-bringing-diseases-to-europe, 20 October

Independent, 2016, Cutaneous leishmaniasis: Disfiguring tropical disease sweeps across Middle East, 30 May

Spiegel Online, 2015, Merkel's Refugee Policy Divides Europe, 21 September

The Verge, 2018, Migrant caravans won't bring disease: anti-vaxxers will, 30 October

[기타 인터넷 자료]

두산백과 2018.12.12. 접속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221212&cid=40942&categoryId=32799

CDC(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 홈페이지 2019.03.01. 접속 https://www.cdc.gov/dpdx/leishmaniasis/index.html

Euronews의 인터넷 설문조사 2016.10.20. 시행, 2017.04.20. 접속http://www.euronews.com/2016/10/20/are-refugees-bringing-diseases-to-europe

Eurostat 2018.12.31. 접속 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Asylum_statistics#Number_of_asylum_applicants:_drop_in_2017

WHO 2018.12.22. 접속 http://www.euro.who.int/en/health-topics/communicable-diseases/vector-borne-and-parasitic-diseases/leishmaniasis

WHO 유럽지부 홈페이지 2018.12.22. 접속 http://www.euro.who.int/__data/assets/pdf_file/0007/246166/Fact-sheet-Leishmaniasis-Eng.pdf?ua=1

교신: 황진태, 08815,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101동 411호(이메일 dchjt@naver.com, 전화: 02-880-2108)

Correspondence: Jin-Tae Hwang, 411ho #101 SNUAC 1 Gwanak-ro, Gwanak-gu, 08815, Seoul (e-mail: dchjt@naver.com, phone: +82-2-880-2108)

최초투고일 2019. 2. 23
수정일 2019. 6. 24
최종접수일 2019. 6. 26